5년간 일자리 238만개… 스펙초월 채용 시범운영

고용부 업무보고… 임금피크 연계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에 나선다.

학벌주의 타파와 일자리 불일치를 막기 위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 6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개년 계획을 6월까지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는 기업은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서울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박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53.5%이던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올리기 위해 165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40.4%였던 청년 고용률도 임기 말까지 47.7%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49만개를 만든다.

청년이 불필요한 스펙쌓기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도 도입한다.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서 전문가 멘토링을 받게 한 후 청년 인재은행에 등록시켜 기업 채용 담당자가 이들을 평가·채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멘토스쿨' 1호를 출범시켜 시범 운영하고 연내에 8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학력과 스펙 외에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한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으려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출산한 아내를 둔 남편을 위한 1개월짜리 '아빠의 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2013~2015년)계획을 6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반복·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에는 돈으로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6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년층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추경 '12조원+α'… 20조 달할 듯

기재부 "재원 국채로 조달… 증세 적절치 않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α)을 더한 '12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 달 국회에 낼 추경예산은 총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액수는 2009년 28조4000억원(세출 17조2000억원 증액+세입 11조2000억원 감액)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 차관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우려하며 추경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정된 지출을 못 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판 재정절벽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건 맞지 않아 (추경을 통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 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세입감소분(12조원)을 메우고 추가로 하는데, 추가 규모는 당정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잉여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증세를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증세하면 지출이 감소하므로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애초 예산안 기준으로 7조8000억원이던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4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차관은 추경과 별도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출 조정은 불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복지·교육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세출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우리 존엄 훼손하면 개성공단 폐쇄할 것"

北 대남 위협 수위 높여

북한은 지난 30일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수 있다고 언급, 대남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북한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과 어용언론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이 간신히 이루어지는데 대해 '북한이 외화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느니, '북한의 두 얼굴'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까지 모독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괴뢰패당과 남반부의 영세중소기업"이라며 "경각에 달한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께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對南) 위협조치와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도발시 우리의 모든 전력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전력까지 동원해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지난 30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창조경제 개념 모호하다" 질타 쏟아져

박근혜 정부 첫 당정청 워크숍서 쓴소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첫 번째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처음 모인 자리인 만큼 한목소리로 '화합'을 강조했지만 토론이 본격화되자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유 수석이 박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를 곁들이며 국정철학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자 "그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국정철학인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10년 이상 일해본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도 "개념이 모호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인사검증 실패도 빠질 수 없는 핵심 의제였다.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인사다.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조해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닌데, 최근 낙마 사건은 주변에서 해야할 말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의원은 "인사참사가 일어났는데 비서관들이 인사시스템 안 갖춰져 있고, 인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며 "비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부 인사 국민 심려끼쳐 송구"

"인사검증 체계 강화"

허태열 靑 비서실장 사과문

청와대는 지난 30일 잇따른 장·차관 낙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사검증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김행 대변인이 대독한 사과문에서 "새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인사위 내 인사팀과 민정수석실의 검증팀 인원을 보강하고 검증 단계를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태열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멤버 구성 개선이나 위원회 실무 인원 보강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사 대상자의 평판이나 소문 등 '검증 사각지대'로 여겨진 분야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대규모 인사가 없는 만큼 앞으로 개각을 포함한 인사에서는 사정기관을 통해 밝힐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인사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해 중도낙마한 인사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평판이나 소문 검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판·소문 검증은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꾸준히 고위공직자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존안자료에 검증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잡종지
● 입지조건:대형차량진입 가
● 허용용도: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 룸 교 환
두암동4층 원룸
대 지 324㎡
건 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융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뷔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